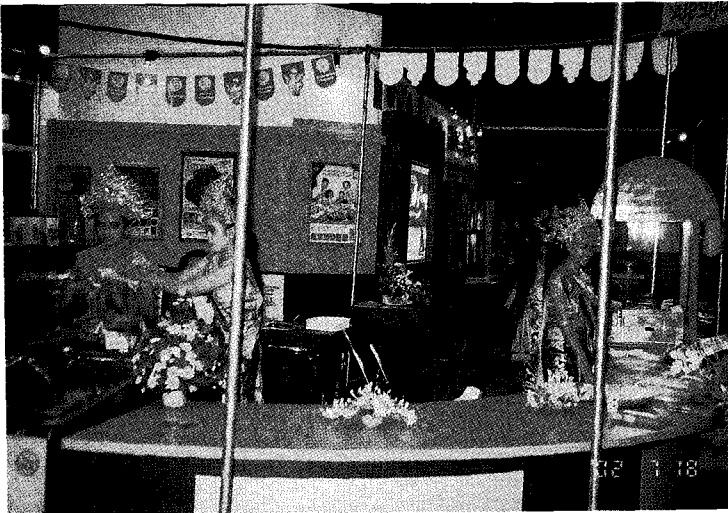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축산업 발전에 새로운 기회 될 듯

◇ 취재 / 김용화 부장  
(egg114@poultry.or.kr)



▲ 전시회 내부광경(인도네시아의 전통의상을 입고 도우미들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은 국제적으로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서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02축산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세계 22개국에서 200여 업체가 참여하여 축산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국제 행사로는 다소 적은 규모지만 참가객이 5,000여명에 달해 그런 대로 행사의 질적인 면에서는 어느 국제 축산전시회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

아인들이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갖는 관심이 높았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참관객은 주로 인도네시아인들이었고, 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인들이 많이 참관한 것으로 보였다. 한국에서도 몇 개 축산관련 업체가 참관 겸 자사제품 홍보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익히 알려진 세계 유수의 케이지 업체가 거의 참여를 할 정도이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축산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대가축 보다는 가금산업 분야의 전시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시분야는 크게 산란계 케이지와 집란시설, 사료 및 동물약품, 종축, 축산물 가공기계가 주종을 이룬 가운데 실물 전시보다는 적은 부스로 상당 위주의 행사로 진행이 되어 전시회 초창기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현재 육류 총 소비량은 약 170만톤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이 7.7kg로 우

리나라 30kg에 비하면 4분의 1에 불과하다. 전체 축산물 중 가금육이 58.5%로 가장 많고, 소고기가 21.3%, 돼지고기가 11.3%, 양고기와 염소고기가 5.9%, 물소고기가 2.9%를 차지하는데, 계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약 50여개 수준이다. 육계업은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소비량이 높아 약 4.5kg을 소비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하여 계열화 사업이 잘 발전하여 종계업이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2천만명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자바인 45%, 순다족 14%, 마두루인 7.5%, 말레이인 7.5%, 기타 26%이며, 종교 분포는 회교 87%, 기독교 6%, 천주교 3%, 힌두교 2%, 불교 1%이며 300여 종족이 혼합되어 있다. 회교도가 많아 돼지고기 섭취량이 적은 대신 가금육 소비가 많은 편이다.

1인당 GNP는 980달러로 매우 낮고, 농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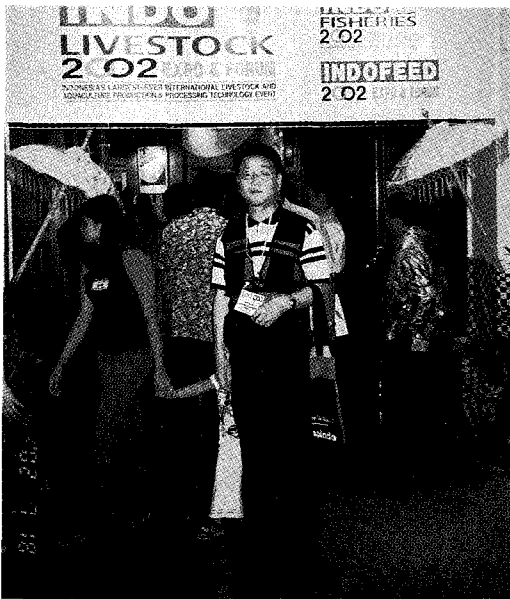


▲ 해안가에서의 닭싸움 장면(인도네시아의 닭싸움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나 노동력의 50%가 농업에 종사한다. 방문 당시 1달리가 8,500Rupiah의 환율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발리인들의 월수입은 한화로 환산하여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대략 20만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10만원선대의 생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시회가 열렸던 발리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에 비해 면적은 3배 정도이며, 인구는 400만명이 거주하는 매우 넓은 섬으로 국제적인 휴양지로 유명하다. 관광객 중 한국인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과는 교류가 많은 섬이다. 발리섬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신전을 만들기 때문에 신들의 섬이라 불린다.

외국 관광객에게 상당히 개방적이며 영어도 잘 구사하는 편이어서 불편은 크지 않았다. 다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관광차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는데, 망중한을 즐기는 서양사람들에게 딱 맞는 좋은 휴양지인 발리섬에서 국제적인 축산 전시회 개최를 기획하여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외화를 벌어들이는 정신에서 인도네시아인의 세계화 접근 자세에 큰 감명을 받았다. **양계**



▲ 전시장 입구에서 필자(김용화 본지 편집장)의 모습